

‘전기도둑’ 광주·전남 6년간 1250건, 위약금 33억

지자체·공공기관 버젓이 위약금 전국 상위 30위 전남 9개 자치단체 포함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6년 동안 한 해 평균 200건이 넘는 전기 불법 사용이 적발돼 위약금으로 만 수십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에게 제출한 ‘계약 중별별·유형별 위약금 현황’에 따

르면 지난 2008년 이후 6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적발된 도전(盜電) 사례는 모두 1250건으로 한 해 평균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도 2010년 11억, 이듬해 12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6년 동안 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전기도둑 행위가 민간을 넘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위약금 전국 상위 30위 지자체에 목포, 순천, 나주, 무안, 영광, 함평, 영암, 보성, 장성 등 모두 9개 시·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의 경우, 지난 2011년 가로등 정액등을 무단 사용했다가 2억999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고, 영광도 정상적인 계약 없이 가로등을 사용했다가 17억원 상당을 부과 당했다.

화순은 121w 짜리 가로등 1300여 개를 무단 사용했다가 지난 2010년 1억7000만원 가까운 위약금이 부과됐다.

이 밖의 기초자치단체도 유사한 이유로 적게는 40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기를 무단사용하거나 용도를 위반하는 등 불법사용건수는 9만

4,603건에 위약금만 2,2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무단사용 및 증설 2만6967건(616억원) ▲계기조작관련 1284건(46억원) ▲중별위반 6만557건(1388억원) ▲사용시간 외 기타 5795건(169억원)순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불법과 무단사용이 만연해 있음에도 한전이 이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한전은 국민의 부담만 지워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려하기 앞서 도전과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위약금 증액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방 정가

광주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조세철

광주시의회 조세철(새정치·동구 2·사진) 의원이 25일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 위원장은 “광주시의원 모두가 시민의 대표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의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임기 동안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원들의 윤리적 문제를 엄격히 심판하는 고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시의회가 전국 최고의 의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원 모두가 의원윤리강령에 충실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의원 자질향상과 도덕성 함양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조례 통과

광주시의회 이은방(새정치·북구 6·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가 25일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급식위원회에 식재료 안전성 검사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전문기관에 의뢰해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여부 실험검사 실시 후 결과 홈페이지 공개, 방사능오염 식재료의 유해성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광주 혁신학교 운영 조례안 통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제23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옥자(새정치·광산 3·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재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수를 전체 초·중·고등학교 수의 100분의 10 안팎에서만 지정·운영할 수 있다.

또 유치원과 특수학교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2014년도 예산 심의에서 유치원을 혁신학교로 지정하기 위한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전체 중 혁신학교 지정 비율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사·중복 국고보조금 통폐합

정부가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유사·중복 국고보조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부패가 만연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정부는 각 부처의 비리 실태 파악과 적결 의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부정부패 적결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그중 국고보조금 비리 등을 ‘우선 적결 비리’로 특별 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흩어진 국고보조금 정보를 올해 안에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뒤 내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이력 정보와 보조금의 배정, 집행, 성과평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기재부 등 관계 부처들은 보조금 정보 공개 항목을 확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다방면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돈이다. /연합뉴스



김 중자산업 연구센터 준공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25일 오후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김 중자산업 연구센터 준공식에 참석, 김 중자 배양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구센터는 신물질 중자 개발·보존·보급 및 김 양식 기술개발 등에 나선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의회, 시청사 리노베이션 사업 제동

입택 “시장 공약사업 졸속 추진 안돼”

민선 6기 윤정현 광주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시청사 1층 리노베이션 사업이 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시민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한 뒤 기본계획을 세워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려한다는 지적(광주일보 22일자 14면)때문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광주시가 시청사 1층 리노베이션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신청한 8억원 중 7억 4000만원을 삭감한 6000만원만 예산결산위원회로 올렸다.

6000만원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리노베이션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상정했다.

행차위원회 입택(새정치·동구 1)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시청 1층 리노베이션 사업과 다목적 영상

을 조성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시청사에 대한 시민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먼저 거친 뒤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면서 “현재 시민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복지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 등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데, 그렇잖아도 호화청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시청사를 8억원이라는 추가

예산까지 투입해 리모델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정현(새정치·광산 1) 의원 등 행차위원회 대부분 의원들도 1층 시청사 리노베이션 예산 수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추경은 시급한 예산 수립을 위한 것”이라며 “청사 리노베이션은 내년 예산에 수립해도 되는,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6기들어 행정중심으로 활용해온 시청사를 시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간 구성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일부에선 호화청사에 또 다시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상당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예산 300여만)
항노화치료
기미클린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 울트라, 세이저, 에너젯 복합치료
② 에드를 레이저 : 스쿠스원, 아아울, 브이엠, 프락셀
③ 케모데모 레이저 : 켈락스, 디오이오드모
④ 피부 미백 : 무데나스원, 엑셀V, 켈락스, 루비레이저
⑤ 주름·흉터 : 프락셀유입, 울트라펄스싱크로, 프락셀로인트라세, 프락셀 세나
⑥ 모공 : 켈터지, 프락셀5종
⑦ 비만 : 내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운암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 수술초기 아찔, 빛반점, 노안시력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40611-증-59153호